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기억하고 준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28 예일프라자 501호 길목교회 gilmokchurch@gmail.com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식사 공동체] 매 주일 예배 후

예배 후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식사교제

[말씀 공동체] 매 주일 식사 후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사회속에서 통할수 있는 지식을 준비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미디어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목요일저녁 기도모임] **목요일 오후 8시 ~ 오후 9시 30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제319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6.9.13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목사: 권세진

목사: 김홍현

목사: 김상진

전임전도사: 전정민

전도사: 이건명

사역자: 최경혜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이건명

권세진

김홍현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최경혜

정지혜

기타: 조성권

드럼: 김태현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김홍현 목사
스타티오(거룩한 멈춤) 다같이
입례송 "임재" 다같이

하늘의 문을 여 소 서 - 이곳을 주목하소서 - 주를
향한 노래가 - 깨지 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 소 서
이곳에 임 재 하 소 서 - 주님을 기다 립 니 다 - 기도
의 향기가 하늘 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소 서 -
- 이곳 에 오 서 서 이곳 에 앉 으 소 서 이곳 에서 드
리는 예배를 받으 소 서 주님 의 이름 이 주님 의 이름
만이 - 오직 주의이 름 만-이곳에 있습 니 다

성서교독 시편 1편 다같이

인도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도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인도자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도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도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도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도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성도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도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성도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고백과 사죄 선언

참회기도.....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성도들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5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선포

말씀읽기..... 요한복음 21:2-13..... 다같이 교독
말씀듣기..... 메시지성경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나눔..... 이견명 전도사
말씀기도..... 다같이

응답과 결단

감사찬양..... "일상" 다같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갈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각자의 삶의 자리와 일터 위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말씀

[요한복음 21:2-13, 개역개정]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신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2-13, 메시지]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힘이 달려서 그물을 끌어 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대!”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 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익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목상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5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공동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점심식사 및 소그룹성경공부	주일 오후 12:20~4:00
교육부서	아동부(코너스톤)	주일 오전 11:00~12:30
	중고등부(물맷돌)	주일 오전 11:00~12:30
청년부모임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금요일 오전 10:30~오후 3:00
길목교회 목요기도모임		목요일 오후 8:00~오후 9:30
1:1 청년성경과외/ 사모모임		정한 요일과 시간예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목사	권세진	전임전도사	전정민 (아동부)
목사	김홍현	전도사	이건명 (중고등부)
목사	김상진	사역자	최경혜 (청년부)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이건명,권세진,김홍현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최경혜, 정지혜	기타	조성권
드럼	김태현, 김상진	싱어	권 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 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 혹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 마친 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복음서통독

두 번째 <4복음서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2장씩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갓피플앱-모임-성경통독 참가 필요)

점심식사 준비

오늘 점심식사는 비빔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일오후 나눔모임

오늘은 점심식사 후에 전체 나눔모임을 갖습니다.

담임목사 성지순례 사역

9.17(목)까지 광영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 선교여정 성지순례 가이드로 사역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부교역자 사역

김홍현 목사·최경혜 사모 / 호주 시드니 샤인코러스 합창단 연주 사역, 시드니제일교회 말씀과 찬양 사역 (9.17-30)

길목교회 사역과 모임

- 평신도 쭈바이블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 이길주 담임목사
- 목요 저녁 기도모임 - 매주 목요일 저녁 8:00-9:30 / 기도하기 원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
-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오후 3:00 / 누구나 참여 가능
- 청년 성경과외 - 권민, 김동호, 서정원, 신유진, 이주안, 이진형, 장미르, 정채은, 제영서, 제윤서 / 권종신 사모

길목교회 가치 공유

길목교회는 수동적인 설교 중심의 소비적인 교인이 되어감을 지양합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 제자와 선교사로서의 삶을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은사와 재능에 따른 사역을 추구합니다.

길목교회의 주일은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위로와 소망의 공동체를 추구합니다.